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0480

한글 성명: 하피조바 파리다

세 상 에 서 존 재 하 는 모 든 것 들 이 서 로
 하 고 볼 가 분 의 관 계 를 맺 고 있 다 고 생
 각 한 다. 작 은 개 미 를 비 롯 해 서 큰 동 물
 들, 눈 에 보 이 지 않 아 순 간 적 으 로 머 리
 속 을 스 쳐 지 나 가 듯 이 나 는 생 각 들, 모 든
 사 람 들, 물 건 들 이 나 신 념 들 이 서 로 의 존
 재 임 을 보 충 하 며 삶 이 라는 철 학 적 인 단
 어 의 뜻 을 이 룬 다.

우 리 가 살 아 가 면 서 겪 는 일 들 에 대 한
 좋 거 나 나쁘 다 는 의 견 을 대 신 하 며 주 로
 "인 면 이 아 닌 가 보 다" 혹 은 "인 면 인 가 봐"
 라 고 많 이 얘 기 한 다. 이 말 은 대 부 분
 종 교 와 도 관 계 가 있 다. 우 즈 베 키 스 탄 에 서
 는 보 통 중 매 결 혼 을 많 이 한 다. 어 린 들
 께 서 어 떤 사 람 을 사 위 나 머 느 리 로 삼
 기 전 에 그 사 람 에 대 해 서 잘 알 아
 보 곤 한 다. 하 지 만 "같이 살 아 보 기 전
 에 알 수 없 는 게 사 람 이 다" 라는 말
 처 럼 만 날 때 의 첫 인 상 을 매우 중 시 하
 는 게 그 나 마 좋 은 방 법 이 라 고 들 한 다.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 균 한 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0480

한글 성명: 하피조바 파리다

처음 해 보는 일, 처음 만나는 사람
 등, 우리가 전에 경험 해 보지 못했으
 면 너무 험갈리게 된다. 하지만 뜻밖인
 경우들은 마치 기적처럼 우리를 맞이한
 다. 이럴 때는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
 꼭 일러주는 것[✓]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
 끌게 되어 왠지 안심하기도 한다. 결론
 에 경우에도 선[✓]보는 사람들이 서로를
 잘 알지 못하는데도 천생연분이면 그[✓]것
 을 마음으로 느껴 몸으로 따르기 마련
 이다.
 그 외에도 내 인생에서 직접 경험해
 본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 인연과
 운명일 뿐이다.
 내가 초·중학교는 그냥 공부해야 한
 다는 생각만으로 공부했다. 이렇게 평범
 하게 지나던 날들 가운데 내가 한국어
 를 알게 되어 한국어에 이끌기 시작했
 다. 집에서 한시간 사십분 인면 거리를
 맨날 지나서 한국어를 통해서만 기쁨을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0480

한글 성명: 하피조바 파리다

는 께 수 있었고 한국어를 통해서만
 에서 볼 이 나 의 욕이 생겼다. 사실은 지
 금까지 내가 한국 사람들만을 좋아해서
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었다. 나
 는 한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똑똑하고
 마음 넓은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겼고
 한국어를 좀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드
 라마에도 호감이 생겼던 것 같다. 어느
 게 우선이고 어느 게 차선인지를 정확
 하게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지금의
 나를 만들어 낸 것이 내가 고등학교
~~서부터~~ 두근거리면서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
 인 것이다.
 “한국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지, 단순한
 언어는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내냐” 라
 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. 이
 러한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뚜렷하고
 명확한 주장이 없는 게 인연인게 아
 니다. 그렇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
 설명을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.

제 12 회 중 앙 아 시 아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AS 0480

한글 성명: 하피조바 파리다

지	식	을		되	도	록		많	이		살	아	가	려		노	력	하	는
도	중	에		한	국	어	의	대	력	에		빠	졌다		처	음	에		
는		단	순	한		언	어	라	고		생	각	할	수		없	었	다	,
너	무		어	렵	고		하	늘	에	서		별		따	는		거	나	
마	찬	가	지	로		느	껴	졌	지	만		원	어	민	처	럼		유	창
하	게		한	국	어	로		말	하	는		것	이		나	의		간	절
한		꿈	이	있다		비	록		원	어	민	처	럼		하	기	에	는	
너	무		멀	었	지	만		지	금	까	지	의		이		부	족	한	
지	식	을		얻	는		동	안		내	가		상	상	도		못	한	
세	상	을		보	기		시	작	했	다		아	마		그	래	서		내
가		백	찬		마	음	으	로		"	한	국	어	와		나	는		인
으	로		만	났	다	"		라	고		기	쁜		마	음	을		표	할
수		있	다		아	직		한	국	에	서		오	랜		시	간		동
안		퍼	문		적	이		없	지	만		한	국	의		분	위	기	를
완	벽	하	게		느	끼	며		한	국	어	로		더		많	은		지
식	을		얻	고		싶	다		지	금	의		성	균	한	글	백	일	장
도		나	의		간	절	한		꿈	을		이	루	는		데		또	
하	나	의		민	면	이		되	어		줄		수	도		있	다	고	
생	각	하	여		이		글	을		마	치	겠	다						